

본지 기자, 인터넷시대의 다짐

## 우리는 소망한다

# 웹 정보 홍수 시대, 한 잔의 마실 물을

인터넷시대에  
돌아본 창간 정신



▲약사공론 창간호에는 전국 일만여 약사회원들의 공신력있는 신문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 있다. 박목월 시인의 축사까지 새 언론 탄생의 기대와 꿈이 무르익어 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던 신문의 발행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중략) 나는 이 신문이, 신문이 갖는 고유의 기능에만 집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의 사명도 중요하고 의견을 설득하려는 선도적인 기능도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신문을 통한 약우동지들의 단결과 협업의 미풍을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1968년 7월 17일 약사공론 창간호에서 발행인故 민관식 박사는 ‘跳躍과 隆昌의 길목에서’라는 창간사를 통해 약사공론이 약업사회에서 탄생해야만 하는 이유와 미래 존재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약국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 사실을 보도하고, 때론 바른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발행인의 창간사로 돌아가 보자. “참된 민주단체의 번영에는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권익옹호를 위한 모임에는 토론의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문은 우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단결의 고양에 매체로서의 역할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 숭고한 뜻에 배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중한 사명에 ‘편협’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지중한 의무에 ‘사심’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공무사한 민주언론의 창달로 역사적인 사명감에 투철한 전문지가 되기 위해...”

약사회는 물론 약업계가 현안이나, 미래비전에 대해 대화해야 하며 그 마당이 약사공론이 될 수 있다는 큰 뜻을 나타내는 한편 언론에의 ‘배타’ ‘편협’ ‘사심’을 떨쳐내야 한다는 사실을 약사공론 혈관에 깊숙이 주입하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1968년 당시 약계에는 적지 않은 전문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공론이 창간된다는 일만여 약사들을 중심 축으로 돌아가는 약사사회에 사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시키고 이끌어 갈 공신력 있는 언론이 드물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신력있는 언론에 대한 욕망과 독자들의 기다림이 약사공론을 잉태시켰다는 것이다.

민 박사는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가인 프랭클린이

펜실바니아 가제트에 쓴 ‘Join, or die(단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약사공론을 통해 일단 약사가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의 중지가 함께 할 때 이 신문이 갖는 영향력은 크고도 무거울 것이며 우리의 활로는 환하게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의 눈으로 볼 때 이 창간사에서 나오는 ‘...읍니다’ 등 생경한 맞춤법이나 한자 투성이는 LP판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감싸고 있는 향수를 걷어내고 속을 들여다보면 공신력 있는 언론에 대한 심원한 열망이 LP판에서 살아 흘러나오는 음원(音源)처럼 영혼을 깨우고야 한다.

약사공론의 창간 정신은 웹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도도한가? 라는 물음에 직면해 약사공론과 약사공론 인터넷뉴스(www.kpanews.co.kr) 기자들 역시 때때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이 없다’는 말처럼 웹뉴스를 통한 정보는 주위에 깔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사공론이 생성하는 뉴스나 정보가 과연 ‘물 한잔의 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때론 환청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인터넷, 웹으로 표현되는 이 시대의 언론은 디지털 카메라를 닮아 있다. ‘너에게 주어진 필름은 24장이야. 최선을 다해야 겠지?’ 라고 묻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달리 디지털 카메라는 ‘마음에 안들어? 그러면 지워버려’ 라고 말한다. 일단 올리고 보자는 인터넷 뉴스, 그것이 거대 세력화 된 상황에서 언론인의 소명의식은 희미하다.

코끼리를 이야기 해야 하는 거대 담론의 사안조차 ‘꼬리만 문제 삼는 인터넷 뉴스’ 때문에 결론이 우스꽝스럽게 유치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론이 벌이의 수단이 되고, 기자가 경영의 전사가 되는 상황이다.

약사공론 기자들은 약사공론 창간호에 담긴 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인가 써 제껴야할 시대, 쓰지 않을 용기를 충진할 것이다. 그래서 공론을 만들어내고 국민과 약사, 약업인의 합목적적인 공기가 될 것이다. 약사공론 창간에 부친 박목월 시인의 축사 ‘칠, 팔월에 넘쳐 흐르는 노래’처럼 약사공론은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조광연기자 kycho@kpanews.co.kr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정점선

부회장 차도련  
부회장 정태원  
총무 이성희

부회장 조진희  
부회장 조혜숙

부회장 신성숙  
총무 박승현  
외 동문일동